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친구일론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진리
아름다운 사람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창간호 발행인: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조광현 편집: 양재웅

“내가 홀로 있는지라”(렘 9:8)

제2차 청지기 훈련, 6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우리는 지난 2월에 있었던 제1차 청지기 훈련 “예수님의 기도”(눅 6:12)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가 전혀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삶 자체가 기도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눅 22:44). 그리고 6월, 우리는 다시 한번 선지자 에스겔의 무릎(렘 9:8)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유다 백성은 선지자를 통한 경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숭배 행위로 자기의 생각에 따라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예배의 장소인 성전에서도 죄를 짓는데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교에도 불구하고 죄를 향해 돌진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환상’(렘 9:7-11)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 주십니다. 임무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의 환상’을 보는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없도리어 부르짖어...”(렘 9:8). 죄와 허물로 인해 이미 죽었던(렘 2:1,2)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요 3:16)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고전 2:8)! 에스겔 시대의 유다 백성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아주 똑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에스겔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시 살라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사니 자니라!”(롬 8:34).

우리는 위임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임목사님의 건강이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양 기간에도 쉬지 않고 충현교회와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청지기 훈련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청지기 훈련을 준비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반성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행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렘 8:22). 청지기 훈련을 통해 역사하실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생동하는 자원 봉사부, 기쁨 넘치는 자원봉사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움 뜻으로 하라”(벧전 5:2). 지난 5월 21일, 28일 두 주간에 걸쳐 4교구 남전도회 자원봉사대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가족과 함께 나들이하거나 편안한 낮잠을 즐길 시간이었지만 선교관 뒤편에서는 삼절소리, 땀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4교구 남전도회 자원봉사대는 선교관 뒤편에 있는 화단에 나무와 꽃을 직접 구입하여 와서 심고 다듬는 일을 오후 내내 하였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장소가 아니라 대충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듯 정성을 다해 나무와 꽃으로 화단을 아름답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생동하는 자원봉사부의 기쁨이 넘치는 자원봉사이었습니다. 모든 자원봉사자 그렇듯이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자원봉사를 통한 생동감,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 교구간사에게 문의하거나 사무국으로 오십시오. “저가 편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감”(고후 8:17).

오늘(5일) 제7차
CMTC 훈련
(첫째 날)

제1강	선교의 성경적 기초	(오후 6:10~7:00)	갈릴리움
제2강	충현교회 비전과 선교정책	(오후 7:10~7:40)	갈릴리움
	전도 특강	(오후 7:40~8:10)	갈릴리움

*내일(6일) 청년 2부 여름수련회, 오전 8:50, 제2교육관 4층

*이번 주 수요일(8일) 교회주일 중례 전도의 날, 오전 11:00, 수요일부 예배로 시작

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미 초기 유대교 회중에게 150명도 된 이 예배용 노예집은 찬송가이자 기도서로 사용되었다. 물론, 시편을 어떤 가락에 맞추어 불렀는지는 아니지만 기도드리면서 낭송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배 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독교회가 기 시편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도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역 및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고백을 발표로 표현할 때, 이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이 시편이다. 이들은 시편에 나타난 신앙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성경에 인용된 시편의 내용은 완전치 또는 줄여서 약 104군데가 넘고, 그 가운데 몇 편은 여러번 반복해서 인용된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16편, 22편, 31:5, 41:9; 69:9; 118:22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있어서 시편의 의미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신앙의 경건과 하나님의 교제, 죄에 대한 비탄과 원한의 추구, 믿음의 등불로 인해 어두운 속을 두려움 없이 행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 장벽의 최후의 한에서 겪은, 승리 승리와 변형할 때의 신비, 폭풍 중에서의 평온에 대한 이상향을 반영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시편에서 시인이, 시는 교리적 논문이나 설교가 아니라 노래로 불러도 좋을 의도였다는 점이다. 단순히 시편 기자들의 신앙 경험들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속받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표현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영을 견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 27:1; 행 13:33).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시 22:1; 마 27:46).

(고광현 목사)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8)

시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는 두 부분(기원 전, 기원 후)으로 구분된다. 또한 예수님은 역사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환점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와 성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신 분이시다.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하나님의 계시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의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러나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쓰였다고 해서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재 살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에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중언미라”(눅 24:44-48).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심과 같이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시역을 말씀하고 있다. 그 중 시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러기에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 가

WONDERFUL RECONCILIATION

(18)Now, all these things are from Go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19)namely, that 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not counting their trespasses against them, and He has committed to us the word of reconciliation.

(2 Corinthians 5:18,19)

Reconciliation is a central doctrine of Christianity. It is a change in relationship or attitude from enmity to peace, the cessation of hostility in attitude or action. The idea is that two persons that should have been together all along restore their relationship. Two persons who allowed something to come between them are reunited. Before we came to faith in Jesus Christ, we were an enemy of God (Rom. 5:10-11). We could not call God our friend. We were rebellious and disobedient sinners who rejected God. We fought, cursed, denied, and ignored Him because we refused to live for Him. Everyone who is against God lives for himself or herself, not Him. God did not live for Himself, but gave us His Son to die for us. Specifically, in Christ God reconciled the sinful, hostile world to Himself by Christ's taking upon Himself the cost of our hostility and enmity, thereby setting the world free to restored union with God.

God reconciled us to Himself. Humans do not have the capability to reconcile themselves to God. No human resources can solve the sin problem that exists between God and man. God is the only one who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bring us together. The foundational assumption of the gospel is that only God can bear and remove the consequences of human enmity toward God and the resulting separation from God; therefore, God alone can effect this change in relationship. God is the one who calls us toward reconciliation,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God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the death of Jesus Christ. When a person believes that Jesus Christ died for them, God accepts the death of Jesus Christ for the death of the person. In other words, God takes the condemnation born by Christ as condemnation due to the person, "He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 sin on our behalf, so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2 Cor. 5:21). The cross that Christ bore puts to death the enmity between God and man. Colossians 1:20 says,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all things to Himself, having made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through Him, I say, whether things on earth or things in heaven." We need Jesus in order to be reconciled with God. Jesus said, "Abide in Me, and I in you.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of

itself unless it abides in the vine, so neither can you unless you abide in Me... If anyone does not abide in Me, he is thrown away as a branch and dries up; and they gather them, and cast them into the fire and they are burned" (Jn. 15:4-6). The blood of Jesus reconciles us to God, so that we become His children. Through the blood of Jesus, we become God's children,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forgiveness of sins" (Mt. 26:28). Jesus poured out everything for us; He did not leave out anything.

Go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namely, that 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not counting their trespasses against them, and He has committed to us the word of reconciliation" (v. 19). Do you minister the word of reconciliation, or something else? God wants to send us out into the world to proclaim this message. He wants to give us this wonderful job. Are you doing it? You say you want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you keep working for yourself. Do you truly understand Romans 10:4, "For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for righteousness to everyone who believes" Whoever believes in Jesus wants to share this righteousness with others. Jesus reconciles humans to God through the cross, by it having put to death the enmity (Eph. 2:16). We have to give this message to others. For how can they reconcile to God if they do not know about it, if someone does not witness it to them? We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us. Jesus commands us to be His witnesses throughout the world (Ac 1:8). This is our job. Jesus prayed, "As You sent Me into the world, I also have sent them into the world... I in them and You in Me, that they may be perfected in unity, so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 sent Me, and loved them, even as You have loved Me" (Jn. 17:18, 23).

The Bible is all about life and relationship. Its purpose is to reconcile us to God. The word of God can bring us back to Him! He designed a wonderful plan of reconciliation through Jesus Christ, and gave us His Holy Spirit to help us in our ministry of reconciliation. Please do not sit around and enjoy your blessing, but rather go out into the world and proclaim this message. Amen. 🌿

다음 주일 설교

놀라운 화목

⁽¹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¹⁹⁾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락하셨느니라 (고후 5:18~19)



김성관 목사

화 목

화목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화목은 누군가와와 관계나 태도가 적대적인 것에서 우호적인 것으로 바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태도나 행동에서 중요성이 사라진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원래 친밀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화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화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롬 5:10, 11).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친구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거역하며 불순종하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대항했고 저주했으며, 부인했고 무시했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대신 죽게 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적대감과 중요성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세상은 죄악의 사슬에서 놓이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났나니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지닌 어떤 재능으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지닌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복음의 기본 전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적대시해서 생긴 모든 결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담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효함을 인정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된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 5:21).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것을 멸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 15:4-6).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 26:28).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9절). 여러분은 화목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세계 곳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맡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만을 위해 일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의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엡 2:16). 우리는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그들에게 이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그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행 1:8). 이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18-23).

성경은 온통 생명과 관계회복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분께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이라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사역을 돕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음미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리를 박고 일어나 땅 끝까지 이 소식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장로 칼럼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6교구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1)



고제송 (6교구장)

6교구는 잠실동, 송파동, 오금동, 방이동 등 7교구에 포함된 일부지역(풍납동, 신천동, 오륜동)을 제외한 송파구를 중심으로 비교적 교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구입니다. 8개 지역, 32개 구역, 351세대 879명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1)는 말씀 아래 전 교구 식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만 높이며 충헌교회에 허락하신 5대 목표를 기쁨과 감사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찬양예배, 수요일 12부 예배, 금요일 등 교회 공 예배 참석에 앞장서며 교구의 모든 식구들은 해당 형령에 맞는 교회 학교는 물론 수요 성경공부, 교사 양성부, 찬양대 양성부, 충헌 전도대 훈련에 동참하고 주간 성경 통신을 통하여 1년에 일독 이상 성경을 읽으신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십자가 복음을 바로 깨달아 각자의 처소에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지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1인 1명 이상 전도와 남녀 전도회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교회 주변 전도에 앞장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배해 놓으신 영혼을 만나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교회 주변이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도 8개 지역을 중심으로 10개 팀이 단기 선교팀 구성을 이미 완료하고(1개 팀은 2월 초 사역을 마친)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CMTC훈련, 언어훈련, 영성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영적으로 준비된 단기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도구들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구 내 남녀 전도회, 상호회, 상호회, 상호회 찬양대가 중심이 되어 전도, 구제, 봉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참 사랑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으며 자원봉사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정결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일 교구 모임 대역자, 구구장, 지역장 가족과 구역 식구들이 특별 찬양 순서를 마련하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고 가족을 소개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고, 남성 구역 모임은 매월 8개 구역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예배 참석 인원도 증가되어 점차 부흥되고 있으며 또한 매월 둘째 주일 지난 금요일은 교구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림으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게 하고 교구 전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됨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교구 대상성 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심방이 어려운 가정은 이를 경우 찬송가, 성경 말씀, 설교 요약을 준비해 전달하여 심방을 못 받은 가정이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6교구 식구들은 “같이, 같이, 같이, 같이”(요 14:6) 되신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땅 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거하게 하고요 말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6교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2차 청지기 훈련을 기대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지난 번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의 청지기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한 분뿐인 아들, 아버지를 흠 없이 찬양하신 예수님께서도 땅에 떨어지는 편지와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편지로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제가 사마리아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영접한 뒤, 오직 아버지 가운데 살던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의 믿음은 나태해져갔고, 바쁜 직장 생활로 청지 기원의 기쁨조차 잊어갔습니다. 그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 외면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기회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랑스런 둘째 아이가 또래들보다 발달이 늦다는 것을 감사를 통해 수차례 알게 되던 날은 참으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보니까 어린 저를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기도하게 한 주님, 내게 기도 제목으로 작은 아이를 주신 주님,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작은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오만함과 게으름으로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또 다시 열릴 청지기 훈련을 기다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제게 더욱 가까이 해지고 나약해질 것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제 모습, 지금 이대로 가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세요. 세상 끝까지 주님만 붙들게 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에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그 날을 기다립니다.

이정화 (권철, 16교구)

제2차 청지기 훈련을 기대하며

감사와 기대

“청지기 훈련”의 금요일회는 웬지 은혜를 받는 것뿐 아니라 내가 뭐가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과 기대감이 두배다. 지난 2월 제1차 청지기훈련 때도 잔뜩 기대를 하며 교회로 향했다. 전도한 친구에게 시간을 맞추느라 우리는 8시에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다. 난 교회에 7시 30분 정도에 도착했는데 이미 자리가 차고 넘쳐 갈릴리홀로 가야 했다. 3층에서 기다리면서 모니터를 보며 마음을 들었고 그 와중에 갈릴리홀도 활가 봐 안절부절하며 간신히 마음을 들었다. 스코티어였지만 말씀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기쁨이만...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였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일만 하신나—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일에 쓰시나—헛되게 쓰여지는 시간도 없으니 기도가 필요없으실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따로 한참한 곳을 찾아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 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눅 6:12).

하나님과 교제 또 아버지께 하신 말씀으로 사역하셨던 주님, 청지기인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그것을 말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나님과 교제—우리의 기쁨이나 슬픔, 빈곤과 고통, 억울함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믿을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시련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 26:41).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루 종일 깨어 기도하시면서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걸까? 바로 제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단다. 큰 사역·열두 사도를 택하심을 두고 기도하셨고, 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으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도 흠이 없는 양무리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승천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기도의 모습은 형식적·습관적으로 막연히 기도해왔던 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제 6월 17일! 2005년 제2차 청지기 훈련이 있다. 이번엔 어떤 말씀으로 청지기 된 우리를 훈련시킬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주시고 인공 삼시고 친히 빛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고 감사하며 기대된다. 주여 주는 토기장이이시며 나는 진흙입니다. 주의 그릇으로 날 빚으시옵소서.



정희숙 (청년2부)

말씀까지

전도 스케치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화요일, 한 통의 전화.

“내일 교회 주변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를 다녀올 때마다 다음에는 기도과 말씀으로 준비하여 나가리라 다짐했던건, 또다시 분주한 일상에 휩쓸려 전리를 떠나 내딛었던 발걸음을 돌이키며 회개했다.

수요일 낮, 하늘은 비를 뿌리고, 바람도 꽤 세졌다. 아이를 업고 전도하기에는 꽤나 곳은 날씨였지만, 수요일마다 탁아부 선생님들이 전도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 주셔서 엄마들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다.

우리 전도회가 맡은 지역은 논현동 빌라 건물과 크고 작은 회사들이 들어 있는 건물 몇 동. 파송 기도를 드린 후, 우선 빌라 주택 한 집 한 집 벨을 누르며 비어 있는 집이 대부분이다. 간혹 “누구세요?”라 묻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에 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꼭 읽어 보세요.” 철문 밖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길지 않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한 집도 빠짐없이 전도지를 넣고 다음 구역으로 향했다.

점심 때라 좀 쉴 법도 한데, 어느 직장이건 사무실 안은 좀 이상할 정도로 정적과 긴장감이 감돈다. 용기를 내어 띄엄띄엄 자리한 회사원들에게 전도지를 건네며 복음을 전한다. 사무적인 친절로 답하는 이들로부터, 무관심, 냉담, 반감, 가득 찬 분노도 거부하는 이까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때론 당혹스럽지만, 우리들의 이슬비 같은 사역에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반응하는 것이니 늘 감사하고 감사하다. 일일이 기억하진 못하지만 이 영혼들과 전도지역을 위한 기도가 늘 함께 해야 함을 깨닫는다.

우리는 교회주변 지역 전도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알수록,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는데 더 힘쓰게 되며, 복음은 결코 나의 언변, 성격, 요령 등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입어야만 전할 수 있음을 알았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4,5).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만을 담대히 전하여 예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전파되도록, 늘 말씀을 대하며 주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늘 힘써야겠다(엡 6:19).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영혼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써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8교구 마리아전도회)

“매월 둘째 주 수요일 ‘교회주변 전도의 날’에는
탁아부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이들을 맡기고 전도하세요.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6월 7일(화) - 6월 15일(수)	7교구 7지역	이연경	6월 7일(화) - 6월 16일(목)	10교구 7지역	심화민
6월 7일(화) - 6월 16일(목)	8교구 2지역	추병환	6월 8일(수) - 6월 17일(금)	4교구 5지역	문호식
6월 7일(화) - 6월 16일(목)	8교구 6지역	최우승	6월 9일(목) - 6월 17일(금)	1교구 5지역	안현원

▲ 안재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5월 30일(월) - 6월 7일(화)	소망부(1)	송한진	6월 2일(목) - 6월 10일(금)	7교구 1지역	송두심
5월 30일(월) - 6월 7일(화)	13교구 5지역	김재은	6월 2일(목) - 6월 9일(목)	천년1부(2)	조준민
5월 30일(월) - 6월 8일(수)	10교구 1지역	남은희	6월 3일(금) - 6월 11일(토)	5교구 8지역	양기수
6월 1일(수) - 6월 10일(금)	2교구 6지역	김문섭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5월 23일(월) - 5월 31일(화)	11교구 3지역	장경주	5월 24일(화) - 5월 31일(화)	외선부(1)	김현배
5월 23일(월) - 6월 1일(수)	3교구 1지역	최남하	5월 25일(수) - 6월 3일(목)	2교구 7지역	정용희
5월 23일(월) - 6월 2일(목)	14교구 5지역	김영환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선교팀에 합류하고, 그곳에서 만나 할 영혼들을 위해 전령터에 나가는 군사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으니 떠나기 며칠 전부터 마음이 불안했다.

열흘 동안 과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까? 언더도 미숙하고 날씨도 45도로 무더운 모기도 많았는데... 처음 가는 선교라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러나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음이 생겼다. 선교지의 어느 마을에 도착해 축초전도를 나갔다.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 검은 얼굴에, 입 속에는 항상 무슨 열매 같은 것을 나뭇잎에 싸서 씹고 있어 이빨에 피가 묻은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낯선 이방인을 따듯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반기가 뵈어주었다. 더듬거리며 어눌하게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여 들어 주고 영접 기도도 따라하며 함께 손을 잡고 ‘아멘’ 하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나는 그들에게 뿌려진 복음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썩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임을 믿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단지 나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할 뿐이다.

우리가 사역한 날이 명절과 겹쳐 거리마다 음악과 물 축제로 많은 무리가 거리로 나와 들뜬 분위기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나 차에 물을 뿌려 주는 것이 한 해 동안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의식같았다. 전도 사역을 나갈 때 겸 겸 있는 오픈카를 이용해 온 몸으로 물 세례를 받아 물에 빠진 사람 같았으나 서로의 모습을 보며 마음껏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과 복음을 위해 맞아 주는 것이어서 찬양으로 화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을 돌면서 축초전도를 하다 보니 가난한 마을임에도 불고 사원이 하나씩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 저 사원이 세워진 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소서.’ 기도가 절로 나왔다. 이 곳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이 부족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눈물이 솟구쳐올라 느껴졌다.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는 동안 나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번 사역엔 하나님께서 그곳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허락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깨닫게 해 주셨으며 또한 나를 훈련하고 계심을 깨달았다. 너무나 아리고 연약한 나의 신앙을 선교를 통해 기도로 준비시키고 만나 주셔서 더욱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는가 보다. ‘하나님 감사해요!’



남영은 (3교구)

형제여

주께서 내게 관심 가지셨고

형제여 너는 살리라.

너 위해 십자가 짊어졌을

기하고 담대하라는 주의 말씀에

자처럼 청원 있었니,

힘을 얻는 연약한 전도자,

형제여 너는 살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믿음 위에 항함으로

전도서 읽으면서

예수님 증인 되겠다는 아들 있었니,

의롭게 위조받은 종 있었니,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형제여 너는 살리라.

8교구에서 만난 천년 배나를 생각하여 17교구 이준옥 품

말씀을 나누는 큰 기쁨



예배가 끝난 후 재잘대며 분반공부 장소로 이동하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함에 최선을 다했는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날이세요?”

승민 : 띠어랑 포도주 먹는 날이요~

동욱 : 어뵤 얼마랑 아뵤만 먹어요. 나도 먹고 싶다~

주희 : 선생님! 몇 살 되면 먹을 수 있어요?

성찬식 얘기가 나오면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이리쿵 저리쿵 줄줄이 말을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만찬이었음을 말해주려면 띠어랑 포도주 이야기로 신이 난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을 맞추며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나요?”

예은 : 우리들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천국갈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친구하고 싸우거나 부모님께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준영 : 혼나요.

“그래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받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죄 값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답니다.”

영은 : 와 ...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동욱 : 선생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지요?

“맞아요,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하다고 기도 드려야 되겠지요. 성찬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시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예요.”

준영 : 그럼 매우 슬픈 날이네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슬픈 일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으신 것이고, 살아난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요. 오직 사랑 많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념하면 되답니다.”

예은 : 경건? 선생님! 경건이 뭐예요?

주희 :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음...AA..”

질문이 끝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지는 못하지만 저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주어진 30분이 너무 짧지만,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이들도 나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마침같이 후, 다시 재잘대며 집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 배운 말씀이 밑거름이 되어 굳건한 믿음으로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백경희 (유년부 교사)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

처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시작하게 된 이 곳 유아부에서 벌써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신생명의 모습으로 생기고 있는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에 마냥 신기하고 행복하구나 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날마다 채워주심으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것은 단지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맛보기만 할 뿐이다.

얼마전 유아부에서 성찬 예배를 드릴 때의 일이다. 유아부 아이들은 실제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림교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을 배웠다. 그 날 우리반 한 아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고 피흘리고 계신 사진을 보며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예수님, 피 나요...피 많이 나요...아파요...” 하며 작은 몸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에 나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깨닫지 못하고 있을 이 작은아이가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이제는 아무런 신경도 반응도 없어져버린 나의 냉랭한 마음을 회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 버리고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불쌍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이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눅 18:17)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야 알 것 같다. 작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런 어린아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이다. 내 마음이 이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나에게 있어 유아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곳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곳임에 분명하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져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커가는 우리 유아부 아이들의 모습에 나는 오늘도 천국에서 숨 쉬고 있는 것 같다!

한디진 (유아부 교사)



부르심의 응답

주님의 부르심에 지난 5개월 동안 얼마나 응답을 하였는가? 나의 기도제목을 리스트업하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얼마나 기대하며, 응답만 하여 주신다면 당시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어디로든 나아가겠다 기도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나의 부르짖음만 있었을뿐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최근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하 말씀에서 자신들의 소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 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를 바라시며 주님은 당시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셨다. 솔로몬의 계약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멸망이 시작되고, 결국 요새를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 그 원인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교만함이 있었다.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왕하 17:13-14).

타당, 하나님께서 청년1부 공동체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무엇보다 내 손에 의해 이루고자 했던 계획들 속에서 허둥대며 5개월을 보냈다. 팀모임을 위해 그리고 전도집회를 보내며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감성적인 호소를 하였고, 가끔 그들의 피드백이 올 때면 나의 자랑을 앞세워 혼자 즐거워했다. 나의 존재 전체가 오로지 한 분을 위한 헌신이라는 함을 잊고 나만의 하나님께 세워 그 아래 목을 굳게 하며 교만하게 보낸 시간이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너의 삶 속에서 내가 필요하니?” “네.”

“내가 널 부르는 소리는?” “...가끔은요.”

이제 디사상 4의 필요에 따라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지 않기를 원한다. 매일 매일 주님이 필요하듯,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자 한다.

김길남 (청년1부)

교회 탐방 66 수요성경공부 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믿음은 믿음에서 나다(롬 10:17) 하였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믿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수요 성경공부를 신사하였다.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수요 성경공부과정을 수료한 성도들을 모시고 말씀을 배운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나누어 본다.

성경공부를 하게 된 동기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처음으로 공부를 하였습니. 앞으로도 계속 성경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이도연)

성경공부를 하면 그것을 계기로 성경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종우)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김연경)

주위 분들의 권유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연미)

작년에 주강성경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번에 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모태신앙이었으나 결혼 후에 시간을 드리지 못 하여서 말씀을 대만 갈망이 있었습니다. 언니의 권유로 수요공부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박예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보다 구역장으로서 구역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구역공부를 하면서 점점 선한 욕심이 생겨서 마음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모두 흡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연미)

저만 공부를 만나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 성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박예경)

저도 아내와 함께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요. (이종우)

성경공부가 준 영적유익은?

구원의 확신이지요. (이도연)

공부를 할 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한 것을 삶에 적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한 깨달음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박예경)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배워서 좋습니다. 교회에는 다니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면서 조금씩 제가 바뀌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1년 전과는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김연경)

성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김지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종우)

수료 후 소감은?

좀 더 많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이도연)

성경공부 시간이 더 많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우)

정말 공부를 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김연경)

끝날 때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다음 학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부는 끝났지만 끝까지 복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연미)

말씀에 대한 열망이 생겼고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중요도에 살려낸 담대한 믿고 생각합니다. (박예경)

믿지 않는 남편한테 제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경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 (김지현)

복음의 중요도에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이들에게, 다음 학기에도 더 많은 성도들이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꿈을 갖는다. (편진실)



다음 주일 찬송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라이저 테일러 카셀(Rev. Elijah Taylor Cassel, 1849~1930)이 목사가 되기 전 의사로 있을 때인 1902년 네브라스카주 헤이스팅스에 있을 때 착한 찬송이고, 곡은 부인인 플로라 헤밀턴 카셀(Flora Hamilton Cassel, 1852~1911)이 작곡했다.

1절은 우리 그리스도의 현재를 나그네 인생에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가를 분명히 정의하면서 곡을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은 저 분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별다른 것 2100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표로 이 땅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전도의 사명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감당해 나가야 하며 이 놀라운 사명을 찬양해야 한다.

후렴은 이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자상 명령으로서 부하하신 일이다. 이 일은 천사로도 감당할 만한 놀라운 일이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언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 우리로 너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언하여 간구하느니라'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는 자로서 이 화평의 복음을 온 세상 널리 전할 것을 찬양해야 한다.

2절은 이 복음의 소식은 온 세상 만민이 들어야 하며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영광의 초석이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쁨의 소식은 온 세상에 널리 전할 것을 찬양한다.

3절은 이 복음은 영생의 복과 천국의 길 같은 인도해 준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온 천하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놀라운 사명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하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며 이 놀라운 일을 행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2005년 총현교회는 온 세계 방방을 향한 주님의 복음전도의 사명을 부하받았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막 16:15). 이 주님의 복음전도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며 우리의 전부를 드려 주님 부하하신 일에 순종하는 총현의 모든 성도가 되자. (찬양위원회)

새 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48	임혜분	9	장년부	양윤민(9)	1580	한은애	1	청년1부	이승훈(1)
1549	김희영	9	장년부	김기홍(10)	1581	김희정	19	대학부	박윤석(8)
1550	이정호	15	장년3부	오동환(5)	1582	양희심	19	대학부	
1551	김철갑	15	청년3부	김영철(15)	1583	장영순	1	청년3부	박덕영(10)
1552	이종우	6	청년2부	한사재(1)	1584	이문희	19	청년1부	이득혜(3)
1553	손진진	6	청년2부	한사재(1)	1585	박혜선	19	대학부	이숙희(14)
1554	김종수	6	청년2부	이진규(6)	1586	김도연	19	청년2부	백영희(5)
1555	이종미	19	청년1부	김영옥(4)	1587	이하나	19	고등부	이덕규(8)
1556	박진비	19	청년2부	엄예민(19)	1588	양재덕	15	청년1부	김경(2)
1557	정미선	1	청년1부	오상덕(4)	1589	양승희	19	대학부	조용국(4)
1558	서지영	19	대학부	곽숙단(4)	1590	김혜진	19	대학부	송혜경(18)
1559	전규홍	19	청년1부	정영태(10)	1591	이지국	19	청년1부	이혜숙(6)
1560	주승희	15	장년3부	오형심(15)	1592	정미경	19	대학부	변영희(6)
1561	조정수	13	장년2부	서민순(5)	1593	이운재	9	에바디부	송용규(19)
1562	김영림	14	소망부	조윤성(2)	1594	안재현	13	장년3부	오동환(14)
1563	정일환	7	청년2부	김지현(7)	1595	김준례	13	에바디부	노지은(19)
1564	조영규	3	장년부	송영삼(6)	1596	김진희	9	에바디부	주영희(4)
1565	김종갑	14	장년1부	김영준(4)	1597	박시종	19	청년1부	
1566	나영옥	4	장년2부	송중숙(4)	1598	김희영	19	대학부	박지현(8)
1567	홍일표	19	청년1부	이영순(9)	1599	최숙이	10	청년2부	김민정(9)
1568	김정화	8	장년2부	한종복(4)	1600	김성희	19	고등부	양희희(14)
1569	박정택	19	청년1부	전영태(9)	1601	김영선	19	청년1부	최금준(1)
1570	공진서	1	장년1부	김준(5)	1602	김진희	19	청년1부	최금준(1)
1571	박정호	7		설보선(7)	1603	학화수영	19	외선부	남계순(18)
1572	김일동	19	청년3부	안준호(4)	1604	서빛스	19	외선부	김철남(8)
1573	김정호	19	청년3부	안준호(4)	1605	소혜아	19	외선부	정영옥(1)
1574	남지준	19	청년1부	오희재(14)	1606	김재희	19	외선부	전영림(15)
1575	조성일	19	청년1부	박상진(4)	1607	이혜옥	19	외선부	문영숙(1)
1576	전소실	16	장년3부	이승규(16)	1608	홍영선	19	외선부	이순현(4)
1577	전예숙	4	장년1부	방유정(4)	1609	인도강	19	외선부	홍정순(4)
1578	정별상	4	대학부	김일현(4)	1610	김진기	19	대학부	김용성(9)
1579	민예민	12	청년1부	안영옥(12)					

교 회 소 식

모임

1. 정기 담회
일시: 8월(수) 수요일 예배 후
장소: 담회실
2. 안수집사 연합예배
일시: 5월(토) 오후 15:00
장소: 교육관 307호

발세

1. 안병희 성도 (안재자 집사의 부친, 김계기 집사의 장남) 6교구 삼천지구 5월 26일 별세, 5월 28일 장례
2. 안민호 타교집사 (안인환 성도, 박태순 은퇴집사의 장남) 3교구

대지 2구역/ 5월 29일 별세, 5월 31일 장례
3. 송재정 성도 (송순자 집사의 부친, 박정환 집사의 장남) 16교구 안산3구역/ 5월 31일 별세, 6월 1일 장례

결론

1. 황대환 군 (황인석 씨, 장필남 님 과집사의 아들, 19교구)과 박미진 양 (김산성 성도의 딸, 안원정 장로교회) 6월(월) 12주와 14주 결혼식을 올린다
2. 권태복 군 (권병영 장로, 황화숙 권사의 아들, 4교구)과 김성은 양 (김대환 안수집사, 황진성 권사의 딸, 1교구) 9월(목) 12주와 14주 결혼식을 올린다

3. 양인석 군 (양창구 성도, 김경숙 대권 문자성교회 집사의 아들, 19교구)과 박익선 양 (박문순 과 안수집사, 김복수 집사의 딸, 10교구) 10월(금) 13주와 14주 결혼식을 올린다
4. 박병근 군 (안득록 성도, 박태권 대교로장의 아들, 3교구)과 정진영 양(장영환 씨의 딸) 11월(수) 13주와 14주 혼인식예배를 올린다
5. 배기훈 군 (배계수 대교로장, 임복도 대교로장의 아들)과 남미희 양(남광수 안수집사, 김순연 권사의 딸) 11월(토) 14주 성유배타 17주(2호선 삼성역)

◆ "한 영만을 주님의 품으로" (교회주변 전도의 날)

일시: 8월(수) 오전 11:00
대상: 전 교인 (교구별 여전도회 중심)
진행: ① 수요부 예배 ② 교구별 영성훈련 ③ 여전도회 회례회 ④ 교회주변 전도 실시

◆ 안수집사 부부만찬

기간: 19일(주일)까지
시간: 16:00-18:40 장소: 교육관 301호

복지관 직원모집

1. 모집분야 사무국장직
2. 자격 세제교인인 55세미만으로서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
가. 7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 한 자
나.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 등 정예인 재할 관련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다. 고등교육기관에 의한 대학 졸업 후 정예인 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3. 채용방법 서류심사 후 면접
4.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본초증, 최종학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16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이다.)
5. 접수 처 (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문화재단 사무국 02-567-3037
6. 모집기간 6월 10일(화)부터 6월 17일(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6월 충현 가도의 창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권령을 주십시오.
2. 6월 17일 금요일에 시에 있을 제2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모든 충현의 청지기가 심령에 예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를 같이 세기도록 하십시오.
3.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4.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기뚁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십시오.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십자가 복음을 확산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7. 5대 복음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십시오.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하십시오.

2005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6월 12일 (다음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최종철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장 홍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40	기독교론 (김익선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이희석 목사)	교육관 304호		
6월 19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임현덕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론 (최종철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관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6월 26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안수·세례식(여적 찬양예배, 분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성바람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오후 2시 30분까지 입성바람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6(월)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주일)
설교자/기도자	이창수/정정길	윤수인/문경안	황진성/윤해근	장 윤/박찬식	이정훈/최종순	김태석/정경희	김성준/이복순

예배담당 안내 (6/8-6/12)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6/8	수요 I	주 예수내림에 대하여 (호산나 찬양대)	류병희	김봉재	이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 1:1) 김영훈 목사
6/8	수요 II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기리라 (설교양 찬양대)	정현민	임장식	주님을 따르려면 (마 16:21-28) 여극근 목사
6/10	금요일회	바리새인과 예수 그리스도(스카르노 구주은/송만부 중창단)	여극근		천국 복음 II 양계운 목사
6/12	주일 I	(예배 전 찬양)	장정영	김원철	놀라운 화복 (고후 5:18-19) 이상진 목사
6/12	주일 II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외로와 노회영 (임우열 찬양대 홀로이스트)	이종대	안종욱	놀라운 화복 (고후 5:18-19) 정진호 목사
6/12	주일 III	예수 나를 위하여 외 금관중주 (한말루아 오케스트라)	이종대	최귀길	놀라운 화복 (고후 5:18-19) 정현민 목사
6/12	주일 IV	성자의 귀한 몸 외 스카르노 블루스인 (아련 찬양대 홀로이스트)	최정규	김관기	놀라운 화복 (고후 5:18-19) 안지현 목사
6/12	주일 V	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네라 김병무, 바리새 이세익 (별관 찬양대 홀로이스트)	최종철	이형수	놀라운 화복 (고후 5:18-19) 김영춘 목사
6/12	주일 찬양	가브리엘 중창단(벤딤 콰이어)임우열 찬양대	유기만	신광철	위대 것을 찾으나 (골 3:1-4) 여극근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회	오후 7:30	본 당
세례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회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일출루
금요일절기	오후 11:00	금요일절기 분당 일출루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선교관 1층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지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 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 부	오전 12:00	제2교육관 2층
장 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청 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후 12:15	교육관 307호
소 랑 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호
예배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타 악 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10호
새가족음악부	오후 12:15	메다니움
충현이런이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건강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회대국민선교부	오전 11:00	아덴 홀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2교구장	김은호 교구비서	노광현 담임사	오전국 담임사	이병학 담임사	이종대 담임사	정현민 담임사	박민기 담임사	류병희 담임사	김영훈 담임사
엄필성 의전부장	이훈 의전부장	남선우 의전부장	김영길 의전부장	김종구 의전부장	여극근 의전부장	안광영 의전부장	나광영 의전부장	정진호 의전부장	김종덕 의전부장
최귀길 재정부장	이창호 재정부장	차진석 재정부장	김광남 재정부장	이종석 재정부장	고광환 재정부장	위진환 재정부장	김기현 재정부장	장 조 재정부장	임현덕 재정부장
안종욱 간사	임무진 간사	이갑재 간사	전홍욱 간사	전홍철 간사	이희수 간사	최종철 간사	안지현 간사	정종순 간사	
이정우 간사	김단웅 간사	황원길 간사	한송규 간사	김영우 간사	이경원 간사	이창수 간사	김준희 간사	윤수인 간사	황진성 간사
김환기 간사	원운호 간사	이형수 간사	안동원 간사	황의만 간사	이창수 간사	이창수 간사	김준희 간사	윤수인 간사	황진성 간사
김구형 간사	최원준 간사	이계인 간사	박덕양 간사	이태식 간사	이창수 간사	이창수 간사	김준희 간사	윤수인 간사	황진성 간사
정태두 간사	박홍규 간사	권명옥 간사	조종환 간사	배준식 간사	이창수 간사	이창수 간사	김준희 간사	윤수인 간사	황진성 간사
김영달 간사	이철호 간사	최희용 간사	노영환 간사	박철규 간사	이창수 간사	이창수 간사	김준희 간사	윤수인 간사	황진성 간사
정창길 간사	신상수 간사	고재수 간사	강철형 간사	김영은 간사	이창수 간사	이창수 간사	김준희 간사	윤수인 간사	황진성 간사
이달욱 간사	장철환 간사	김승근 간사	함철규 간사	윤석민 간사	이창수 간사	이창수 간사	김준희 간사	윤수인 간사	황진성 간사
정선현 간사	안석진 간사	김연근 간사	김장국 간사	김종선 간사	이창수 간사	이창수 간사	김준희 간사	윤수인 간사	황진성 간사
임창식 간사	김은철 간사	전하철 간사	김신재 간사	전계식 간사	이창수 간사	이창수 간사	김준희 간사	윤수인 간사	황진성 간사
김형근 간사	장승근 간사	전준배 간사	서영식 간사	구재환 간사	이창수 간사	이창수 간사	김준희 간사	윤수인 간사	황진성 간사

■ 부목사

이종대 담임사	정현민 담임사	박민기 담임사	류병희 담임사	김영훈 담임사
여극근 담임사	안광영 담임사	나광영 담임사	정진호 담임사	김종덕 담임사
고광환 담임사	위진환 담임사	김기현 담임사	장 조 담임사	임현덕 담임사
이희수 담임사	최종철 담임사	안지현 담임사	정종순 담임사	
양재용 담임사	이성진 담임사	조주호 담임사	최정규 담임사	이계영 담임사
이경원 담임사	이창수 담임사	김준희 담임사	윤수인 담임사	황진성 담임사
정성영 담임사	이창수 담임사	김태석 담임사	김성준 담임사	

■ 여전도회

정현희 담임사	신동자 담임사	윤윤식 담임사	한영준 담임사	김연식 담임사
홍은자 담임사	이창수 담임사	김말자 담임사	안태순 담임사	김정연 담임사
조옥자 담임사	김덕희 담임사	최문실 담임사	전은희 담임사	김영순 담임사
김정자 담임사	이창수 담임사	김정희 담임사	이복순 담임사	류진희 담임사
한성희 담임사	이창수 담임사	이창수 담임사	이창수 담임사	이창수 담임사
■ 찬양감독	김영구	■ 전일지킴이	서준성	
■ 전일지킴이	김소연			